

우리의 비전 : 북미 원주민 마을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날이 오리라 !!

우리의 사명 :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



2026년 7월까지 바울선교회 국제 본부장으로 선교회를 책임지고 국내,외 전체 선교사를 돌보는 임무를 맡은, 캐나다 원주민 사역자 김문영 이순양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자녀들 면담및 지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미래시대의 주인공인 젊은이들,, 또 그들중에 선교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교지에서 사춘기의 어려움과 인생개척의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 MK들을 만났습니다.

부모들은 현지에 남아있고 한국에서 대학생활과 직장생활하는데 이들에게 한국은 낯설고 적응하기도 힘든곳이어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또한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되도록 같이 걸겠습니다.

영어권 현지인 선교사 파송



필리핀에 소재하고 있는 영어권 현지인 선교사 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을 마친 ‘현지인 선교사 파송’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북아의 00국으로 파송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입니다,

이들의 정착과정, 특히 비자와 재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선교회 47기 선교사 파송



국내훈련 4개월, 해외훈련 6개월을 마친 바울선교회 47기 선교사들이 캄보디아와 중동 OO 국으로 떠나게 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헌신으로 든든하게 건축될 것입니다.

48기 선교사 전형 면접



성숙한 주님의 자녀된 분들이 선교사로 지망했습니다, 선교사 지망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삶을 잊혀진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보내십니다.

이들의 삶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국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목원대학교 선교사 훈련원 강의 (협력관계 구축)



목원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감리교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강의했습니다. 감리교 훈련원과 협력관계의 구축으로 더욱 든든한 선교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바울 선교회 동산



선교사 묘지를 조성했고 중국에서 23년간 온 삶을 불살랐던 선교사님이 한줌의 재로 이곳에 제일 먼저 묻혔습니다, 주님 다시오시는 날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의 후손들도 영원한 소망을 확인하는 장소가 될줄로 확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하나님과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중 김문영, 이순양 선교사 드립니다.

(기도 제목)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선교사 부부와 아들 가정이 되게 하소서
2. 바울선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3. 88개국 489명의 선교사들이 성령충만 말씀충만하게 하소서
4.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사용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